| 현불 논단 |

무분별 1인 방송에 대처하려면

이화행 교수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1인 인터넷방송 성장 '폭발적'
모바일 광고 매출 PC를 넘어서
유명 유튜버들 엄청난 인기몰이

이용자가 크리에이터 활동 가능
저비용 제작 · 쉬운 소통도 '장점'
현재 제작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 콘텐츠 난립

문제 방송, 플랫폼도 책임 물어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통해
스스로 유해성 판별 능력 배양을

1인 인터넷방송의 확산과 성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디지털미디어 분석업체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의 시청자 수가 2,800만 명을 넘었으며, 매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55% 이상을 동영상 재생이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2017년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조사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광고매출액이 PC 기반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로 지칭되는 인기 유튜버들의 인기몰이도 엄청나다. 2018년 봄 유튜브 크리에이터 순위 1위를 차지한 제이플라의 동영상 'Shape of You'는 조회수 1억 5천에 달하여, 단일 영상 예상 수익만도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희망직 10위권 안에 인터넷방송진행자(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유튜버가 희망직종 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수년 사이 인터넷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소위 유비쿼터스 환경에 힘입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도 1인 인터넷방송의 공급과 수요의 증가에 원동력이 되었다.

인터넷은 방송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전 지구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와 즉각적이고 손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용자가 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기능하는 소위 생산소비자(Prosumer)로 탈바꿈하면서, 방송인이 아니어도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를 넘어 틱톡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산재하다보니 1인 인터넷방송 운영자간의 과열 경쟁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선정적이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콘텐츠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회 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유튜버나 BJ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채널을 통해 여과 없이 방송되어 1인 인터넷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인터넷 방송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하다. 문제가 된 1인 인터넷방송의 규제 대상, 즉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BJ 개인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방송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물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책무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자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즉 미디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콘텐츠의 유해성 판별, 선별적 노출 능력 등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개인의 역량을 말한다. 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인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社 說

만해 선양사업, 불교계도 관심을

만해 한용운 스님은 수많은 독립유공자 중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기미독립선언서에 동참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서 '공약 3장'을 추가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족을 생각한 독립정신을 꺾지 않았다. 불교계에선 월간지 〈유심〉과 〈조선불교유신론〉 등을 펴내며 불교의 개혁을 주창한 개혁인사로, 문학계에선 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저항문학에 앞장선 문학인으로 평가된다.

이런 업적을 기리고자 여러 지자체에서 만해 스님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이자 만해 스님 탄생 140주년을 맞아서다. 올해 전개되는 선양사업들은 단순히 '기념'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화와 뮤지컬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만해라는 인물을 알리고, 관련 유적지 개발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만해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님의 침묵'은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만해 스님 유택인 심우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제는 차질 없이 선양사업이 전개되는 것만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초 발표된 지자체들의 계획은 올해 3월 1일에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6.13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만해 선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한국 그리고 불교 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만해 스님의 정신이 선양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롯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생애주기 신행' 활성화 원년 삼자

조계종 포교원이 2016년 신행혁신 운동을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신행정보센터를 각 지역에 세우고, 다양한 의례집을 보급하는가 하면 신행상담을 비롯해 기존 진행된 신행일지 작성 등도 보다 활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관혼상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신행의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생애주기별 신행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다. 유아기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등 각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불교의례, 불교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성년의날을 맞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성년의날 예배 등을 치르고 기독교식 축하행사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교계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다.

이제 생애주기별 신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의례 보급부터 맞춤형 활동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 어르신 법회를 넘어 사찰 차원의 문화행사,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활동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처님은 불교의 생명은 대중 속에 있음을 말하셨다. 대중의 삶과 괴리된 고상한 교리나 사상은 박물관의 문화재처럼 박제되기 십상이다. 이제 한국불교는 생활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한 발씩 더 들어와야 한다. 그 시작은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진행할 생애주기별 신행활성화 사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종책 집행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의례집을 보급하고 중앙 주도의 행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이 생활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도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아이들이 걱정하는 지구

"엄마,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에 인간만 남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전광판을 보고 이런저런 환경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아들이 내게 물었다. "그러게. 그런데 인간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가 있어서 그 덕분에 살 수 있거든. 공생하고 있어서 다른 생명체가 사라지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게 될 거야."

평소 생명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다 어릴 적부터 엄마로부터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생명관을 자주 들어왔던지라 아들은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초등학생인 아들조차 지구가 걱정이다. 2019년의 우리 아들처럼, 1992년에도 12살의 한 소녀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서번 컬리스-스즈끼. 서번은 제1차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은 이렇다.

"저는 어른들의 행동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걸 직접 말하기 위해 가진 돈을 모아 8000km를 날아왔어요. 저는 어린이일 뿐이고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릅니다. 오염된 하천으로 연어들을 돌아오게 끔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멸종한 동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법도 모릅니다. 이미 사막으로 변해 버린 곳을 예전의 숲으로 되돌려 놓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복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파괴를 중단하세요!"

어쩌다 숲은 사막이 되고, 동물들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나는 분명히 알지를 못한다. 게다가 나는 동물을 죽인 적도 없고 나무를 벤 적도 없으니, 그 누군가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은 따로 있고 나는 오히려 지구의 위기를 걱정하는 쪽이라고 위안하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린 서번이 외친 "파괴를 중단해 주세요"라는 한마디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

서번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 연설 이후 지금까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 책을 내고 환경 관련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수많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지구를 위해 움직여 온 그녀가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개인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부터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를 위기에 처하도록 행동해 온 당사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동안 일어나는 파괴의 행동을 인지하고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

일회용 종이컵이 난무하는 시대에 휴대용 개인 컵을 들고 다니는 좀은 별나고 번거로운 행동양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별나게 보여도 언젠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지구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405-9402 영주지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구지사 : (053)768-8008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가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